

국내 벤처캐피탈의 주요 플레이어 현황 및 특징

- 국내 벤처캐피탈의 주요 플레이어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근거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
- 지난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신기술금융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이와 더불어 신기술투자조합의 신규결성도 확대추세를 지속
- 창업투자업권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은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투자업종별로는 두 업권 모두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임

- 국내 벤처캐피탈의 주요 플레이어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근거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
 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함
 - 이 외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 집행,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을 통한 해외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사무는 등록 후 3년 내에 납입자본금의 50% 범위로 함¹⁾
 -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기업여성전문금융 중 신기술사업금융을 전업으로 하며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(신기술사업자)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함
 -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용자업무도 수행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과 신기술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
 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주체는 각각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고, 한국벤처투자조합(KVF)의 결성주체는 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유한책임형(LLC) 벤처캐피탈²⁾ 등으로 조합에 따른 설립요건 및 투자대상이 다름
 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요건은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으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주로 업력 7년 미만의 비상장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
 - 한국벤처투자조합(KVF)의 설립요건은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으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며, 모태펀드³⁾의 출자를 필수조건으로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

1)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6조

2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회사를 의미

3) 2005년 결성된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미래창조과학부,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 출자한 자금으로,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창업투자조합 등 자펀드 출자를 통해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

-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며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및 운용

투자조합의 구분 및 특징

구분	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	한국벤처투자조합(KVF)	신기술사업투자조합
설립근거	중소기업창업지원법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여신전문금융업법
관할기관	중소벤처기업부	중소벤처기업부	금융위원회
결성주체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	신기술사업금융회사
설립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출자금총액: 20억원 이상 (KVF는 30억원 이상) ·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비율: 출자금 총액의 1% 이상 · 존속기간: 5년 이상(KVF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를 필수조건으로 함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·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·운용
투자대상	비상장 중소기업(창업 7년이내), 벤처기업	중소기업 및 벤처기업	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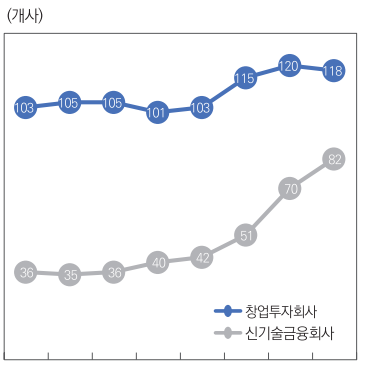
□ 지난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신기술금융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이와 더불어 신기술투자조합의 신규결성도 확대추세를 지속

- 2017년 6월말 기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수는 82개사로 2015년 51개사대비 60.8%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 것에 기인
 - 동기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82개사 중 전업신기술금융회사는 38개사이고, 겸영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금융투자회사는 각각 31개사와 13개사로 집계
 -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증권회사의 진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기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 진출이 두드러짐
- 한편 창업투자회사 수는 2017년 6월말 기준 118개사로 2015년 115개사대비 2.6%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창업투자회사 수의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폭 증가
 - 지난 10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향후 창업투자회사의 신규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⁴⁾
- 지난해 신규결성된 신기술투자조합은 127개로 2015년대비 83개(188.6%) 증가하여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, 올해 상반기에도 49개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규결성됨
 -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(KVF)의 신규조합 결성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20개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6개의 투자조합이 신규결성됨

4)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9조 1항(2017.10.17.일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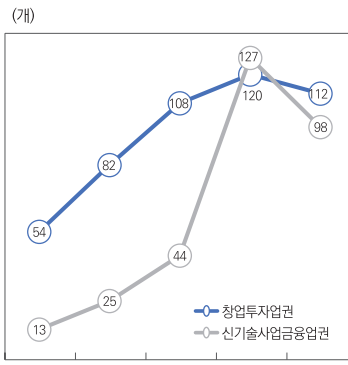
- 2017년 6월말 기준 투자조합의 운용 규모는 총 22.8조원으로 창업투자업권과 신기술투자조합이 각각 17.8조원(78.1%)와 5.0조원(21.9%)로 집계
 - 동기간 운용 중인 투자조합의 평균 결성금액을 살펴보면 창업투자업권은 276억원, 신기술투자조합은 226억원으로 창업투자업권의 조합당 투자 규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
 - 창업투자업권의 경우, 2017년 6월말 기준 전체 투자재원 18.9조원 중 조합비중은 93.6%로 대부분 조합을 결성하여 투자를 집행

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 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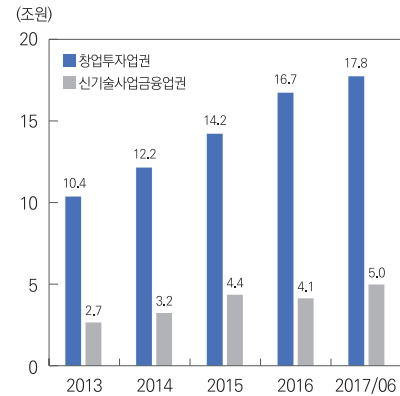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여신금융협회

투자조합 신규결성 수 추이



주 : 1) 2017년은 예측치이며 상반기 신규결성 수의 2배로 계산
2) 창업투자업권은 KVF 포함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여신금융협회

투자조합 운영 규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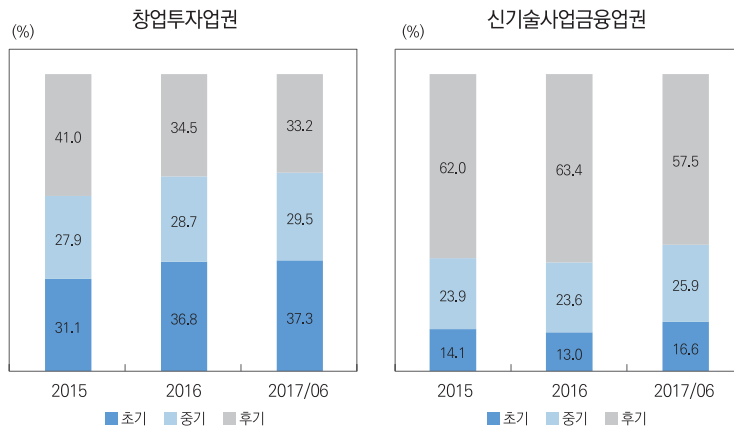
주 : 운영 중인 총 결성금액 기준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여신금융협회

□ 창업투자업권은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은 업력 7년 이상의 창업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, 투자업종별로는 두 업권 모두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큼

- 2017년 6월말 기준 창업투자업권은 업력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37.3%로 가장 높은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은 업력 7년 이상의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57.5%로 가장 높게 집계
 - 창업투자업권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31.1%에서 2017년 6월말 기준 37.3%로 6.2%p 증가한 반면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동기간 7.8%p(41.0% → 33.2%) 하락
 -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투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후기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
- 2017년 6월말 기준 업종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창업투자업권은 정보통신, 엔터테인먼트, 생명공학 순이며,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은 정보통신, 제조업, 생명공학 순으로 집계
 - 창업투자업권의 업종별 투자 비중 : ICT 제조 및 서비스 25.4%, 게임/영상·공연·음반 19.6%, 바이오·의료 15.5% 순

-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업종별 투·융자 비중
: 정보통신 35.3%, 제조업 29.1%, 생명공학 15.6% 순
- 창업투자업권의 경우 게임,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투자가 신기술사업금융권(4.2%)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특징을 보임

업력별 신규투자 비중



주 : 초기(업력 3년 미만), 중기(업력 3년 이상~7년 미만), 후기(업력 7년 이상)을 의미
 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여신금융협회

선임연구원 박신애